AG 금메달로 탄탄대로 연 '캡틴' 손흥민

'軍 리스크' 뺀 손…"시장가치 1300억원"

〈손흥민〉

연초가치 585억원…유럽 롱런 발판
재계약한 토트넘도 '앉아서 돈 방석'
"금메달은 내 소유 아닌 모두의 영광"

"축구에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없다. 이겨야 잘 싸운 것이다."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이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얘기다. 누구보다 강한 승부욕을 가졌기에 패하고도 정신적인 위안을 삼는 건 있을 수 없다. 23세 이하(U-23) 태극전사들과 함께 나선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여정을 준비하면서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결국 해냈다. 손흥민은 1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막을 내린 AG 남자축구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한국은 이승우(20·헬라스 베로나)∼황희찬(22·함부르크SV)의 연장 릴레이 포를 앞세워 일본에 2-1로 이겼다. 잘 싸웠고 당당히 우승을 쟁취한 손흥민은 내내 밝은 미소를 지었다.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기쁨을 표출했고, 김학범(58) 감독을 비롯한 U-23 대표팀 동료들과 얼싸안고 행복해했다.

빠짐없이 등장한 눈물도 빼놓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손흥민의 눈물'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다.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조별리그 무승(1무2패)으로 탈락했을 때를 시작으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4강 진출이 좌절되고, 2018러시아월드컵 여정(1승2패)을 마칠 때도 펑펑 눈물을 쏟았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눈물은 의미가 달랐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오른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들을 때만 해도 미소가 가득했지만 120분 내내 "대∼한민국"을 외친 관중에 인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응원이 감사했다. 금메달은 내 소유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쟁취한 영광이다." 월드컵 2회 연속 득점자(3골)에 이름을 올렸고, AG '캡틴' 완장을 찬 그는 주연이 아닌 도우미 역할(1골·5도움)을 감수한 희생으로 에이스의 품격을 확인시켰다.

AG 금메달은 손흥민 자신에게도 엄청난 선물이다. 들어본 적도 없는 대회에 흔쾌히 선수를 보내는 모험을 건 토트넘은 가치가 폭등한 자산을 꾸준히 소유하게 됐고, 손흥민은 모든 리스크를 털고 유럽 롱런의 발판을 마련했다. 독일의 유럽축구 몸값 전문매체 트란스퍼마르크트는 손흥민의 시장가치를 4500만 유로(약 585억원·1월 기준)로 매겼다. 재계약에 군 문제까지 해결한 지금은 얼마나 더 몸값이 뛸지 모른다. 항간에서는 1억 유로(약 1300억원)까지도 전망한다. 2010년부터 프로인생을 시작해 2018년 마침내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우승을 경험한 손흥민의 내일은 더욱 밝아질 일만 남았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게 금 맛이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일 보고르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2-1로 승리한 뒤 목에 건 금메달을 깨물어 보고 있다. 손흥민은 대회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다. 보고르(인도네시아) | AP뉴시스

토트넘·외신도 손흥민 병역면제 실시간 보도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23세(U-23) 축구대표팀은 명단 발표 때부터 AG 일정을 마무리 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와일드카드로 선발된 손흥민(26·토트넘)의 병역 특례 여부가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AG는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가 아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AG에 손흥민의 차출을 허용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를 승인한 것은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2018러시아월드컵 이후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 스페인 매체 등에서 손흥민에 대한 기사에서 한국의 군 복무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요소였다.

한국이 1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일본과의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 금메달 획득에 성공하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20명의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병역 면제 특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메달 획득이 확정되자마자 토트넘은 구단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태극기를 든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한글로 "이것이야말로 감동의 도가니.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외신도 손흥민의 병역 특례에 주목했다. 영국공영방송 BBC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AG결승에서 일본에 승리해 병역 혜택을 얻었다. 이제 손흥민은 군 복무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 밖에 스카이스포츠,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주요 매체 대부분도 손흥민의 금메달 획득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스동'이 뽑은 베스트3&워스트3

●베스트3

▲손흥민
-와일드카드로 축구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 금메달로 병역 혜택 받고 지속적인 해외 무대 활약 순풍 만나.

▲나아름
-한국 사이클의 대들보 나아름(28·상주시청). 개인도로, 도로독주, 트랙 단체추발, 트랙 매디슨에서 모두 정상에 올라 한국 선수단 최다 4관왕 영광.

▲이케에 리카코
-일본 수영 대표팀 이케에 리카코(18). 개인 여자 접영 50m, 100m, 자유형 50m, 100m와 단체 계영 400m, 혼계영 400m에서 6개의 금메달 획득.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선정 AG MVP.

●워스트3

▲미숙한 대회운영
-정전으로 조명 꺼지고, 자국 심판이 해당 경기 심판으로 배정되고, 국기까지 떨어지는 국제대회. 결국 미숙한 운영이라는 불명예 타이틀.

▲비상식적 심판판정
-한국과 일본의 유도 혼성단체전 8강전. 3-3 무승부가 일본의 승리로 둔갑. 심판진이 국제규정에 따르지 않고, 반칙기술까지 묵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연출.

▲'병역회피' 야구대표팀
-우여곡절 끝 금메달 따낸 야구대표팀. 그러나 태극마크를 병역 회피로 악용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 되돌리지 못해. 활짝 웃을 수 없는 상처뿐인 영광.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판매원 서울약품(주) 제조원 대한뉴팜(주) www.dhnp.co.kr
우리 가족 소화·정장·변비·영양에는
원기쏘 플러스 정 WONKISSO PLUS Tab.
일반의약품 우리 동네약국에서 만나보세요.
腸(장)은 비우고 건강은 채우세요!

✓ 효모, 효소, 유산균, 복합체제
✓ 베타글루칸 (면역력 강화)
✓ 맥주효모 (탈모예방)
✓ 각종 아미노산 함유
✓ 다량의 미네랄 함유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가능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사랑하는 모든분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광고모델] 서울약품 박무식 사장
| 효능·효과 | 소화불량, 정장, 변비, 과식, 체함,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소화촉진, 식욕부진, 식욕감퇴,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인터넷 창에 원기쏘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38 | 소비자 상담 : 02-533-2992 H.P 010-7737-5662